

과거 혁신성과와 R&D 투자 간의 관계와 기업가 지향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

한수경* · 유재욱** · 김추연***

〈요 약〉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의 중요성은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대리인이론의 주장에 따르면 성과창출을 위해 오랜 기간이 요구되고 마케팅, 공정개선 등의 다른 투자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실패 위험을 내포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경영자들은 R&D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쉽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R&D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과 개인 수준의 다차원적 요소들의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기업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 창출을 위한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요소들이 이 같은 전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과거 성과창출 방식의 경로 의존적 영향과 경영자 개인 수준의 지배적 논리가 R&D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이론적 주장에 근거하여, 기업이 지향성이 기업의 과거 혁신성과와 R&D 투자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242개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구 모델과 가설들에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국내 기업들의 과거 혁신성과는 R&D 투자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이 지향성은 혁신성과와 R&D 투자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의 과거 성과가 경영자 개인 수준의 지배적 논리를 강화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분석결과이다. 과거 혁신성과가 기업의 경로의존성에 의해 미래의 혁신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같은 관계가 경영자의 지배적 논리를 통해 영향 받을 수 있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업들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충분한 R&D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경영자의 지배적 논리라는 개인수준의 요소와 기업의 과거성과라는 조직수준의 요소를 조화롭게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주제어: 혁신성과, 경로의존성, 지배적 논리, 기업가 지향성, R&D투자

논문접수일: 2017년 07월 27일 수정일: 2017년 09월 18일 게재확정일: 2017년 09월 20일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주저자), tnrud1211@naver.com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교신저자), jwyo0@konkuk.ac.kr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박사과정(공동저자), chookim@konkuk.ac.kr

I. 서론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산업을 주도하는 가치가 ‘노동력과 규모’ 중심에서 ‘지식과 기술’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변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던 과거 1, 2, 3차 산업혁명은 경제 및 산업 전반의 변화를 생산성 혁명으로 귀결시킨 반면, 4차 산업혁명은 산업 생태계의 근본적 체질과 경제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파괴적 혁신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변화의 속도도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발 빠른 대응과 선제적 투자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같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즉,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설명하는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에서의 주장에 따르면 경영자들은 R&D 투자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는 성향을 나타내기 쉬운데, 이는 R&D 투자가 내포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높은 실패위험 때문이다(유재욱, 김광수, 2008; Wiseman & Gomez-Mejia, 1998). R&D 투자는 성과 창출로 연결되는데 필요한 기간이 길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특성을 지닌다. 즉, 마케팅, 홍보, 공정개선 등과 같은 투자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투자에 대한 성과예측이 어렵고, 성과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금 투입이 요구되는 반면, 단기적인 이익은 오히려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Hoskisson, Hitt & Hill, 1993; Hoskisson &

Johnson, 1992; Miozzo & Dewick, 2002). 따라서 높은 수준의 R&D 투자는 기업의 단기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 의해서 고용된 대리인들인 경영자의 ‘고용위험(employment risk)’을 증가시킬 수 있다(Barker & Mueller, 2002). 즉 경영자들의 보상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이들의 해고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는 것이다(Hill & Snell, 1989).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대변되는 현재의 기업 환경에서는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의 R&D 투자가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로서 부각되고 있다(Souitaris, 2002). 기업들은 R&D 투자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신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선도적으로 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운영능력 또한 제고할 수 있다(Cohen & Levinthal, 1990). 이러한 R&D 투자는 기업의 가치향상을 위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로서, 특별히 혁신에 기초한 ‘선도적 경쟁우위(first-mover competitive advantage)’ 창출이 강조되는 현재의 변화된 기업환경에서는 성장은 물론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강조되고 있다(유재욱, 성병찬, 2008; Sanders & Carpenter, 2003; Ahuja & Lampert, 2001; David, Hitt, & Gimeno, 2001; Szewczyk, Tsetsekos, and Zantout, 1996).

하지만 혁신을 위한 R&D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관련 선행연구들은 조직수준과 개인수준의 요소들이 어떻게 다차원적 관계를 통해 R&D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성과창출 방식의 경로 의존적인 영향과 경영자 개인의 지배적 논리가 R&D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론적 주장들에 근거하여, 기업이 지향성이 기업의 과거 혁신성과와 R&D

투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경로의존성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란 기술이나 운영방식이 특정 궤도에 들어서면, 해당 기술이나 방식이 최적의 선택이 아닐 경우에도 조직을 지배하게 되는 성질을 의미한다(Mahoney, 2000). 즉, 조직 수준(organization-level)에서 과거에 선택된 특정한 운영방식이 자기 강화적인 기제를 통해 수확체증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이상빈, 박은병, 2010). 이와 같이 학자들은 “과거가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는 논거를 전제로 경로의존성을 정의해 왔다. 그리고 이를 특정 제도나 정책뿐만 아니라 조직의 구조와 발전체계 등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해 왔다(Lamberg & Tikkanen, 2006; Schneiberg, 2007).

경로의존성에 대한 개념은 광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되어 정의될 수 있다(Levi, 1997; Mahoney, 2000). 먼저, 광의의 개념에서는 경로의존성을 시간의 연속선에서 이전 단계가 이후 단계에 미치는 인과적 관련성으로 정의한다(Pierson, 2000; Nooteboom, 1997; Sewell 1996). Nooteboom(1997)은 “과거의 발전에서 선택한 방향에 의하여 미래의 발전방향이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미에서 조직의 진화는 경로 의존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Levi(1997)는 협의의 관점에서 경로의존성을 “어떤 대상이 특정 경로를 선택하여 따라가기 시작했다면, 다른 선택

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대안이 존재하더라도 초기 선택으로 인해 쉽게 그 방향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Levi, 1997). 즉, 경로의존성을 초기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해 선택의 범위가 제한받게 되는 사건의 시계열적인 관계방식으로 정의한 것이다(김진수, 서순탁, 2014).

경로의존성의 유형은 크게 자기 강화적 전개(self-reinforcing sequences)와 반응적 전개(reactive sequences)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자기 강화적 전개란 제도유형이 장기간에 걸쳐 재생산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학자들은 이를 수확체증이라 부르기도 한다. 일단 한번 결정된 제도는 변경하기 어려우며, 다른 대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도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 같은 자기 강화적 전개의 영향은 이전 제도의 지속 기간이 길고 효과가 중대했을수록 더 커진다는 것이다(Mahoney, 2000). 이 유형에서는 초기 단계가 이후의 단계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진다.

반면 반응적 전개에서는 다양한 사건과 제도들의 연계적인 진화과정에 대한 주장에 근거한 경로의존성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Mahoney, 2000; 이선엽, 2005). 즉 기업의 제도를 이전의 사건에 대한 기업의 반응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결과물로서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각 사건이 이전 사건의 반응임과 동시에 그 다음 사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발생하는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건들 중 하나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축적되어 마지막에는 큰 차이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로의존성에 대한 광의의 개념과 자기 강화적 전개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과거 혁신성과가 이후의 R&D투자에 미치는 기업수준의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2. 지배적 논리

경영자의 인지가 조직에 대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개인 수준(individual-level)의 특성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인지구조이론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하면 개인들은 정보를 인지하기 위한 조직화된 지식체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인지구조’ 또는 ‘스키마’라고 한다(Dutton, Fahey & Narayanan, 1983). 과거의 경험이나 반응에 의해 생성된 지식 또는 반응체계인 스키마(schema)는 경영자들이 외부환경에 대해 적응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Reed, 1993).

이러한 인지구조 이론에 기초하여 Prahalad & Bettis(1986)는 경영자에게서 독특하게 관찰되는 ‘지배적 논리(dominant logic)’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는 경영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의 조직 생활을 통해 유사한 신념, 가치, 지식 등을 흡수하고 이로 인해 고유의 사고패턴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사고의 틀(mind set)’로서, 세상에 대한 관점 또는 경영에 대한 개념화된 지식과 관리적 도구를 의미하는 것이다(이흥, 1998). 사실 Prahalad & Bettis는 왜 비관련다각화(unrelated diversification)를 통한 성장이 관련다각화(related diversification)를 통한 성장방식보다 성공하기 어려운지를 설명하기 위해 지배적 논리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기업운영과 관련한 경영자의 개념화된 지식과 관리적 도구로 정의되는 지배적 논리는 다각화된 사업구조를 가진 복합기업에서만뿐만 아니라 단일기업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지배적 논리는 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영환경이 요구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들을 경영자

가 지각하고 인지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Walsh, 1995). 구체적으로 지배적 논리는 경영자가 사업에 성공했을 때 만들어진 경험 및 지식과 실패하였을 때의 경험 및 지식을 통해 형성된다(Prahalad & Bettis, 1986). 경영자는 기업 성과가 높았을 때 성공을 이끌게 된 상황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지식으로 형성하게 되며, 반복되는 성공의 과정을 통해 이러한 지식은 더욱 더 강화되어진다. 반대로 실패한 경우 경영자는 그 상황과 대응방법 간의 관계를 기억하고, 미래의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지배적 논리는 다양한 경영상황과 해결과정을 경영자가 체험함으로써 갖게 되는 ‘관습적 지혜’나 ‘상황과 대응의 패턴인식’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습적 지혜와 패턴인식은 매우 단순화된 원리나 규칙을 경영자에게 제공해줌으로써 기업의 운영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기업경영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자들은 복잡한 지식이나 규칙보다 간단한 원리나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인지적인 단순성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경영자들은 경영상황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대처하기보다, 장시간에 걸친 축적한 자신의 경험에 의거하여 형성한 단순화된 원리나 규칙을 상황에 적용하려는 특성을 가진다. 즉, 자신이 소유한 인지구조인 ‘지배적 논리’에 의존하여 상황을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3. 기업가 지향성

Schumpeter(1934)가 주장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에서 유래된 기업가 지향성은 기업가의 열정 또는 의지에서부터 능력이나 산

업에서의 역할까지 다양한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 Miller(1983)는 기업가 지향성을 시장과 제품의 혁신을 추구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진취적으로 대응하여 경쟁자를 제압하려는 기업가의 성향으로 정의하였고, Morris & Paul(1987)은 최고경영자가 위험을 간파하고 혁신적이며 진취적으로 활동하려는 성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Covin & Slevin(1989)은 위험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대담한 행동을 결정하는 경영진의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가 지향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로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의 세 가지 변수가 논의되어 왔다. 먼저 ‘혁신성(innovativeness)’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또는 기술적 과정을 이끌어내는 행동 성향으로서, 이는 아이디어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술혁신을 강조하거나 공정혁신 및 새로운 관리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혁신성은 복잡하고 가치 있는 기업 특유의 자원이 되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Hult & Ketchen, 2001).

다음으로 ‘진취성(proactiveness)’은 새로운 시장 수요와 기회를 사전적으로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는 미래의 시장수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경영활동으로 표출되고, 시장을 선도하려는 기업의 전략적 의도 및 경쟁사보다 먼저 기회를 포착하여 우위를 점하려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Lumpkin & Dess, 1996). 마지막으로, ‘위험감수성(risk-taking)’은 높은 실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자원을 투입하는 행동 성향을 의미한다.

기업가 지향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상호 간의 복합적인 관계형

성을 통해 기업가 지향성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개별 요소 차원에 대한 논의보다는 세 가지 요소들을 결합한 상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진취성은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하고 시장을 선점하여 초과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지만 이를 신속하게 포착하게 하는 위험감수성이 부족한 경우 포착한 시장기회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느 하나의 차원만으로는 기업가 지향성의 개념과 영향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Wiklund & Shepherd, 2005). 혁신성 역시 때로는 경영자가 높은 위험성을 감수하게 하지만 공격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진취성과도 연계될 수 있다. 위험감수성도 중요한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여 혁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혁신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Covin & Slevin, 1990). 따라서 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해 연구해 온 학자들은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이라는 다차원으로 구성된 단일 개념으로서 기업가 지향성을 측정하여 분석할 것을 주장해 왔다(Miller, 1983,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업가 지향성을 이 같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단일 개념으로서 측정하고 분석에 포함할 것이다.

III. 연구가설

1. 혁신성과 기업가 지향성의 관계

진화경제학에서는 경영자들이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직무경험에서 습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trandholm, Kumar & Subramanian, 2004). 즉 일반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영자들이 광범위한 관점에서 분석적 사고력에 기초하여 각각의 경영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실제적으로 문제를 인지하고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은 과거에 축적한 인지적 편향에 의해 보다 더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Hambrick & Mason, 1984).

경영자는 과거의 기업성고가 높았을 경우에 당시의 상황과 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했던 방식의 결합관계를 기억하는데, 이 같은 경영자 고유의 사고 패턴인 지배적 논리는 반복되는 성공에 의하여 강화될 수 있다(Cyert & March, 1963). 즉 과거 혁신활동에 기초한 높은 성과를 달성했던 경영자의 경우 혁신에 필요한 성장 지향적인 의사결정 및 행위라는 지배적 논리에 기초하여 미래의 의사결정 및 행위에서도 보다 높은 위험 감수성, 진취성, 혁신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과거 행위들의 과정적 요소들이 특정 결과를 만들어 내고, 다시 그 결과가 동일한 과정적 행위들을 강화시키는 자기 강화적인 경로의존성에 대한 정의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기업의 혁신성고는 경영자의 기업가 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2. 기업가 지향성과 R&D 투자의 관계

기업의 대표자로서 최고경영자는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Mintzberg, 1973), 이러한 영향력을 대변하듯 최고경영자의 사고패턴과 특성은 기업의 혁신 과정과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서 제시되어 왔다. 최고경영자에 대한 연구들은 최고경영자의 가치관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라고 주장을 제기한 Hambrick & Mason(1984)의 ‘최고경영층 이론(upper echelon theory)’이 발표된 이후 본격화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다양한 실증분석 연구들을 통해 최고경영자의 성향이나 의사결정이 조직의 구조 및 전략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임을 보고하였다(주혜려, 유재욱, 2014; Andrews, 1987). 예로 최고경영자가 외향적이고 개방적일수록 높은 위험감수성을 나타내는 모험 지향적인 기업가적 성향을 나타낼 수 있고, 이에 기초한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때문에 기업은 혁신활동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Elenkov et al., 2005; 박노운, 1998; 송광선, 1995).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다양한 특성 중에서도 특별히 “시장 기회에 직면한 기업이 혁신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성향”으로 정의되는 기업가 지향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가 지향성은 경영자가 사용하는 기업운영 방법, 관행, 의사결정 스타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다(Lumpkin & Dess, 1996). 경영자의 기업가 지향성과 기업의 R&D 투자 간에 관계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고용위험(employment risk)’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에 대한 위험의 최소화하고 단기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경영자들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고체계를 형성하기 쉬운데, 이는 보다 적극적인 R&D 투자를 실행해야 하는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중대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높은 수준의 위험 감수성, 진취성, 혁신성으로 대변되는 기업가 지향성을 가진 경영자는 자금, 인력, 시간 등의 자원을 R&D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성향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논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경영자의 기업이 지향성은 기업의 R&D 투자에 정(+)¹의 영향을 미친다.

3. 혁신성과와 R&D 투자의 관계

오늘날 급변하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혁신과, 이를 위한 충분한 R&D 투자가 필수적인 성공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Balkin et al, 2000). 즉, 기업의 R&D 투자는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원천으로서 혁신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기업 활동인 것이다.

R&D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에 대한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개인적 요인 관점에서의 영향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최고경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나이, 근무 및 교육배경 등의 영향에 집중해 왔다. 예로 서정일, 장호원(2010)의 연구에서는 289개 국내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CEO)와 최고경영진(TMT: Top Management Team)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최고경영자(CEO)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최고경영진(TMT)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간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R&D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주장하였다.

반면 조직적 요인 관점에서의 연구들은 기업의 소유구조, 조직의 규모와 연령 등과 같은 요인들이 R&D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주장해 왔다. 예로 이동기와 조영곤(2001)은 이사회 구성에 있어 사외이사 비율이 기업의 R&D 투자에 중대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을 제시하였다. 이정길(2010)은 기업규모, 매출액 성장률, 외부자금의존도, 자유현금흐름, 노동집약도, 자본집약도 등과 같은 다양한 재무 및 비재무적 요인들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적 요인의 관점에서 기업 차원의 경로의존적인 성향으로 인해 기업의 과거 성과창출 방식이 R&D 투자와 관련한 미래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각 기업은 제품시장의 특징과 성장을 도모하는 방식 등에 따라 전략적 의사결정에서 중대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예로 원가우위 전략을 추진하는 기업은 R&D투자와 신제품 개발을 통한 성장보다 신제품의 주도적 디자인(Utterback and Abernathy, 1975)이 출현된 이후 이를 효율적으로 모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산방식과 공정의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에 기초한 경쟁방식에 집중하게 된다. 반면 차별화 전략을 실행하는 기업은 성장성에 초점을 맞춘 신제품 개발 중심의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 즉 비용 절감을 위해 원가우위 경쟁 방식을 채택해온 기업들에 비해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에 기초한 혁신성과 창출에 주력하기 때문에 보다 더 높은 수준의 R&D 투자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발전을 위해 선택한 방향에 의하여 미래의 발전방향이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조직의 경로 의존적 특성을 고려할 경우, 선도적 경쟁우위 구축을 목적으로 기업이 선택한 혁신 전략과 그 특성은 조직 진화의 경로 의존적 기제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결국 미래의 R&D 전략 및 투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논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3: 기업의 혁신성과는 R&D 투자에 정(+)¹의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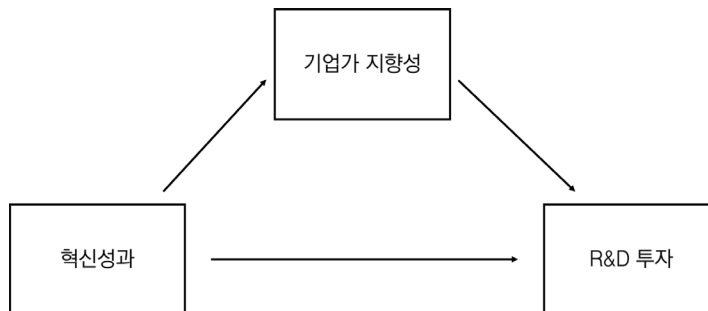
4. 기업가 지향성의 매개효과

기업의 과거 혁신성과가 미래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 관점에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변수들 간의 직접관계 이외에도 조직수준의 혁신성과가 개인수준의 지배적 논리, 즉 경영자의 기업가 지향성을 통해 기업의 R&D 투자 의사 결정에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Cohen & Levinthal, 1990; Zahra & George, 2002). 선행연구들에서는 지배적 논리를 경직성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성과를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편향적인 시각으로 평가해 온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경영자의 지배적 논리가 환경에서 요구하는 전략적 의사결정과 행위를 좀 더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영자의 성향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최적의 전략 선택과 성과향상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관점에서 R&D 투자와 관련하여 기업들은 지금까지 수행해 온 전략이나 소유 자원의 특성에 따라 그들만의 독특한 의사결정 및 행위 루틴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과정에서 경영자들은 자신만의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경영자의 지배적 논리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로 높은 혁신성과를 달성했던 기업에는 혁신활동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성공의 방식이 구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와 같이 구축된 성공방식은 경영자가 경험과 지식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인지구조로서 고유의 사고패턴인 지배적 논리와 이들이 내리는 기업 경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과거의 혁신성과가 미래의 R&D 투자에 미치는 총 효과에는 조직 수준의 '경로의존성'에 의한 직접효과와 최고경영자 개인 수준의 '지배적 논리'에 의한 간접효과(매개효과)가 공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별히 과거의 혁신성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영자 개인 수준의 지배적 논리, 즉 기업가 지향성은 기업의 혁신성과와 R&D 투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같은 논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4: 경영자의 기업가 지향성은 기업의 혁신 성과와 R&D 투자 간의 정(+)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그림 1>은 가설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IV. 분석방법

1. 자료수집

기업들의 혁신활동이 경쟁우위 창출과 유지를 위한 핵심요소라는 전제를 충족시켜주는 연구대상의 선정에 위하여 국내 기업들 중 혁신활동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부문의 기업들로 연구표본을 제한하였다. 구체적으로 혁신활동이 성과창출에 미친 영향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제조 산업 부문(제약, 화학, 전자·컴퓨터, 의료정밀기기, 전기장비) 기업들과 상위 5개 서비스 산업 부문(출판·영상, 과학기술, 숙박·음식업, 도소매, 금융·보험) 기업들로 제한하였다.

<표 1> 표본기업 산업분류

	산업분류	기업수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제외)	25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19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68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8
	C28 전기장비	26
서비스업	G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5
	G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1
	G47 소매업(자동차 제외)	5
	I55 숙박업	2
	I56 음식점 및 주점업	3
	J58 출판업	14
	J60 방송업	1
	J61 통신업	1
Total		242

표본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주관한 ‘2014년도 한국기업 혁신조사: 제조업, 서비스업(KIS 2014)’에서 획득하였다. 기술혁신조사는 우리나라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의 혁신활동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혁신정책수립 및 혁신연구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정 통계조사로서, OECD의 Oslo Manual 3판에 기초한 문항을 사용하여 국내기업들의 혁신활동 사항을 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자료를 통해 4,705건의 국내 산업부문별 혁신활동과 각 산업 부문별 기업들의 혁신활동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 중 위에서 설명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242개 기업의 자료를 취합하

여 통계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매개변수로서 채택한 연구대상기업 경영자들의 기업가 지향성은 각 기업의 연차보고서와 홈페이지 상의 경영자 메시지에 대한 면밀한 ‘구조적 문헌분석(structured content analysis)’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분석대상 기업들의 성과에 대한 재무지표 자료들은 전자공시시스템의 사업보고서에서 수집하였다.

2. 변수측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혁신성과가 기업가 지향성의 매개 작용을 통해 종속변수인 R&D 투

자에 영향을 미치는데 필요한 시간적 차이를 고려하여 독립변수들은 2013년도 자료로 측정한다. 반면, 종속변수는 2014년 자료로 측정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의 종속변수인 R&D 투자는 선행연구들(Hill & Snell, 1988; Montgomery & Hariharan, 1991; Sanders & Carpenter, 2003; 이호욱, 박종훈, 강소라, 2006)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2014년도 총 R&D 투자액을 2014년도 총 매출액으로 나눈 'R&D 투자집약도'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혁신성과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한국기업혁신조사 자료에 공시된 기업의 3년간 혁신실적(2011년~2013년)이 상용화를 통해 기업의 2013년도 매출에 미친 영향의 비중으로서 측정하였다.

기업가 지향성은 선도적 자세, 위험한 사업을 수용하려는 경영진의 성향,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대담하고 광범위한 행동에 개입하는 기업가의 욕구와 관련이 있다(Covin & Slevin, 1989; Miller, 1987). 이와 같은 기업가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Shook et al.(2004)과 Rhee et al.(2010)이 사용했던 방법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 지향성을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사업 및 전략을 선택함에 있어 위험이 높은 사업에 도전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혁신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의 세 가지 하위변수로 구분하여 '구조적 문헌분석(structured content analysis)' 과정을 통해 각각 측정한다. 후 그 값들을 합산하여 기업가 지향성의 단일변수로서 분석에 포함하였다. 구조적 문헌분석에서 기업가 지향성의 세 가지 하위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들의 구체적인 리스트는 <별첨 1>과 같다.

분석에 포함한 통제변수들과 이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규모와 R&D 투자 간에는 유의한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선행연구들에서의 주장(Kor, 2003; Dean, Brown, and Bamford, 1998)에 따라 기업 규모를 대기업은 0, 중소기업은 1로 구분하는 더미변수로 측정하여 분석에서 통제하였다. 둘째, 기업의 혁신성은 기업의 수명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설립된 해로부터 2014년까지의 연수로 측정한다. 기업 연령의 효과를 통제하였다. 셋째, 규모가 작은 비상장기업의 경우 빠르고 과감한 의사결정 과정과 상대적으로 적은 대리인 관계로 인해 R&D 투자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다. 따라서 상장기업 여부를 더미변수(상장기업은 0, 비상장기업은 1을 부여)로 측정하여 그 효과를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특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제조업은 0, 서비스업은 1로 구분한 더미변수의 효과를 통제하였다.

V. 분석 결과

본 연구는 혁신이 강조되는 대표적인 국내 제조 및 서비스 산업부문 기업들의 혁신성과가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기업가 지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2>은 분석에 포함된 주요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와 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보여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크게 높지 않고, <표 3>, <표 4>, <표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에 대한 분석결과가 모두 2 미만(1.095-1.412)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회귀분석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평균, 표준편차, 피어슨 상관계수(n=242)

Variable	M	SD	1	2	3	4	5	6	7
1.조직연령	21.84	12.886		-.056	-.200**	-.245**	.096	.052	-.132*
2.산업유형	.36	.480			-.231**	.316**	-.397**	-.258**	-.191**
3.기업규모	.71	.454				.216**	.114	-.060	.135*
4.상장여부	.69	.465					-.246**	-.165*	-.229**
5.혁신역량	.46	.729						.314**	.313**
6.기업가지향성	4.29	2.729							.299**
7.R&D투자	.02	.043							

**p < .01 *p < .05

실증분석에서는 기업가 지향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Barron & Kenny(1986)의 3단계 회귀분석 검증법과 Sobel Test(Sobel, 1982)를 함께 활용하였다. 먼저 3단계 회귀분석의 각 단계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단계 분석결과 - 혁신성과와 R&D 투자 간의 관계

혁신성과가 R&D투자에 미치는 총 효과를 분석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분석에 포함된 통제변수들 중 조직연령($\beta = -0.191, p \leq 0.01$)과 상장여부($\beta = -0.239, p \leq 0.001$)는 모두 기업의 R&D 투자집약도와 부(-)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연혁이 오래되지 않은 기업일수록 혁신성과의 창출을 위한 R&D 투자비율이 높고, 비상장 기업이 상장기업들에 비해 R&D 투자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또 다른 통제변수들인 산업유형과 기업규모는 기업의 R&D 투자집약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혁신성과와 종속변수인 R&D 투자집약도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혁신이 중요한 국내제조 및 서비스 산업부문 기업들의 과거 혁신성과가 미래의 R&D 투자와 유의한 정(+)의 관계($\beta = 0.261, p \leq 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가설3은 채택되었다.

<표 3> 혁신성과와 R&D 투자의 관계

변수	표준화 계수(β)	t-value	VIF
조직연령	-.191**	-3.091	1.095
산업구분	.006	.082	1.374
기업규모	.120	1.849	1.209
상장여부	-.239***	-3.546	1.302
혁신성과	.261***	4.002	1.221
R ²		.177	
Adj. R ²		.159	
F		10.135***	

***p < .001 **p < .01 *p < .05

2. 2단계 분석결과 - 혁신성과와 기업가 지향성 간의 관계

가설1의 검증을 위해 매개변수인 기업가 지향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실행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통제변수 중에서는 산업구분 변수만이 종속변수인 기업가 지향성과 부(-)의 관계($\beta=-0.183$,

$p \leq 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조 산업부문 경영자들의 기업가 지향성이 서비스 산업부문 경영자들보다 높다는 결과를 의미한다. 또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독립변수인 혁신성과와 종속변수인 기업가 지향성 간에는 가설1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유의한 정(+)의 관계($\beta=.252$, $p < .001$)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혁신성과와 기업가 지향성의 관계

변수	표준화 계수(β)	t-value	VIF
조직연령	-.013	-.209	1.095
산업구분	-.183*	-2.578	1.374
기업규모	-.130	-1.951	1.209
상장여부	-.020	-.286	1.302
혁신성과	.252***	3.773	1.221
R ²		.137	
Adj. R ²		.118	
F		7.473***	

*** $p < .001$ ** $p < .01$ * $p < .05$

3. 3단계 분석결과 - 혁신성과, 기업가 지향성, R&D 투자 간의 관계

3단계 분석에서는 기업가 지향성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혁신성과의 영향을 통제된 후 기업가 지향성이 R&D 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표 5> 참고). 분석결과는 매개변수인 기업가 지향성과 종속변수인 R&D 투자 간에 중대한 정(+)의 관계($\beta=0.228$, $p \leq 0.001$)가 존재함을 보여준다(가설 2 채택). 또한 독립변수인 혁신성과와 종속변수인 R&D 투자집약도 간에도 유의한 정(+)의 관계($\beta=0.204$, $p \leq 0.01$)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영향의 정도는 기업가 정신이 매개변수로 투입됨에 따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개변수인 기업가 지향성이 독립변수인 혁신성과와 종속변수인 R&D 투자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가설 4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일련의 귀무가설들을 연속적으로 검정하는 인과단계방법(Baron & Kenny, 1986)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외에도 간접효과에 대한 단일추론 검정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할 수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 지향성의 매개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대표적인 단일추론 검정방식인 Sobel test를 실행하였다. Sobel(1982)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매개변수의 효과(간접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Sobel's Z-Score의 계산방정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Z_{ab} = \frac{a \times b}{\sqrt{(a^2 \times seb^2) + (b^2 \times sea^2)}}$$

<표 5> 혁신성과, 기업가지향성, R&D 투자의 관계

변수	표준화 계수(β)	t-value	VIF
조직연령	-.188**	-3.122	1.096
산업구분	.047	.691	1.412
기업규모	.150*	2.345	1.228
상장여부	-.234***	-3.570	1.302
혁신성과	.204**	3.112	1.295
기업가 지향성	.228***	3.675	1.158
R ²		.222	
Adj. R ²		.202	
F		11.144***	

*** $p < .001$ ** $p < .01$ * $p < .05$

Sobel(1982)에 의하면 Sobel test에서 도출된 Z값이 -1.96보다 작거나 1.96보다 클 경우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Baron & Kenny, 1986). 본 연구에서 기업가 지향성의 매개효과를 Sobel test로 검증하기 위해 도출한 Z값은 2.5863($p=0.0097$)으로 나타나 기업가 지향성이 혁신성과와 R&D 투자 간의 정(+)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간접효과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VI. 결 론

본 연구는 기업의 혁신 전략 및 성과에 대한 경로의존성과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최고경영자들의 기업가 지향성이 과연 어떤 관계를 통해 미래의 R&D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는데 주된 목적으로 두고 실행되었다.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한 주요 가치와 시사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R&D 투자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반면, 기업의 과거 성과나 운영 방식에 영향을 받

는 조직수준의 요소와 개인수준의 요소가 미래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이 같은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직수준(organization-level)의 영향인 경로 의존성과 개인수준(individual-level)의 영향인 지배적 논리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적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업의 과거 혁신성과가 미래의 R&D 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진화경제학 분야의 '경로의존성' 이론을 통해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과거의 전략적 선택과 이로 인한 결과물이 이후에 발생하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로의존성의 이론적 주장에 근거하여, 조직수준(organization-level)에서 선택한 혁신전략의 성과가 자기 강화적 기제를 통해 수확체증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동안 최고경영자 성향과 그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략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제시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언급해 온 경영자의 다양한 성향 중 기

업가 지향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이 기업혁신의 기반이 되는 R&D 투자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혁신을 위하여 R&D 투자를 실행하려는 기업들의 의사결정에는 기업의 과거성과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받는 경영자들의 성향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고, 혁신성과와 R&D 투자 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배적 논리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혁신역량에 기초한 경쟁우위 창출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변화된 기업환경에서 R&D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수준의 영향요소와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개인수준의 영향요소의 매개효과를 제시하여 이론적·실무적 차원의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가치와 시사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많은 실증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채택한 연구표본의 특수성으로 인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많은 국내의 기업들 중 혁신성과 상위 5개 제조 산업과 서비스 산업부문에 속한 국내 기업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업종에 따른 특수성이나 한국이라는 소재지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제시한 분석모델을 다양한 환경에 속한 여러 유형의 혁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이 같은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과와 R&D 투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변수들 간의 연쇄적 인과관계구조를 검증했는데, 사실 이들 변수들 간에는 본 연구 모형에서 제시한 인과관계 경로들 이외의 대안적인 경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예로 연구의 핵심변수인

기업가 지향성은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조직수준의 과거성과와 미래의 전략 간의 관계에 대한 매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조절변수로서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기업가 지향성의 역할과 영향에 대한 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비교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차보고서와 기업의 홈페이지 상에 제시된 최고경영자의 메시지 내용들에 대한 포괄적인 구조적 문헌분석을 통해 기업가 지향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은 개인의 성향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간주되지만, 자료의 신뢰도 등으로 인해 경영자의 성향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설문이나 인터뷰의 일차자료 수집방법을 병행하여 기업가 지향성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완하고 이에 기초한 추가적인 분석을 실행하는 후속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김진수·서순탁(2014).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본 세종시 정책의 변동과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9(3), 5-29.
2. 박노윤(1998).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기술혁신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인사관리연구*, 22(2), 199-228.
3. 송광선(1995). “연구논문: 기술혁신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연구*, 17(2), 169-192.
4. 유재욱·김광수(2008). “이사회의 독립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CEO의 기업 내 경력과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연구”, *경영정보연구*

- 구, 24, 1-24.
5. 유재욱 · 성병찬(2008). "Prerequisite of Superior Performance: Managing Coalignment in a Dynamic Condition", *경영정보연구*, 25, 35-55.
 6. 이동기 · 조영근(2001). "이사회 구조가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30(4), 1251-1263.
 7. 이상빈 · 박은병(2010). "지역개발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 사례의 비교", *한국동북아논총*, 57, 345-370.
 8. 이선엽(2005). "정권교체에 따른 경찰제도 변화의 유형에 관한 연구: 신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 이론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9. 이정길(2010). "기업특성이 연구개발과 기업가치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금융공학연구*, 9(2), 77-101.
 10. 이호욱 · 박종훈 · 강소라(2006). "최고경영진의 구성, 보상구조 및 인접성이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 인사조직연구(한국인사·조직학회)", 14(2), 29-56.
 11. 이홍(1998). "경영자 관점의 적합성과 경영자의 지배적 논리", *경영학연구*, 27(4), 1091-1111.
 12. 주혜려 · 유재욱(2014). "중국 기업 최고경영자 팀의 배경특성과 국제화 간의 관계와 이사회 독립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경영정보연구*, 33(1), 157-172.
 13. Ahuja, G., & Morris Lampert, C.(2001). "Entrepreneurship in the large corporation:A longitudinal study of how established firms create breakthrough invention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67), 521-543.
 14. Andrews, R. (1987). "On leadership and student achievement", *Educational leadership*, 45, 9-16.
 15. Barker III, V. L., & Mueller, G. C.(2002). "CEO characteristics and firm R&D spending", *Management Science*, 48(6), 782-801.
 16.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17. Balkin, D. B., Markman, G. D., & Gomez-Mejia, L. R.(2000). "Is CEO pay in high-technology firms related to innov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118-1129.
 18. Cohen, W. M., & Levinthal, D. A.(1990). "Absorptive capacity: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28-152.
 19. Covin, J. G., & Slevin, D. P.(1990). "New venture strategic posture, structure, and performance: An industry life cycl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2), 123-135.
 20. Covin, J. G., & Slevin, D. P.(1989). "Strategic management of small firms in hostile and benign environment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0(1), 75-87.
 21. Cyert, R. M., & March, J. G.(1963). A behavioral theory of the firm, Englewood Cliffs, NJ, 2.
 22. David, P., Hitt, M. A., & Gimeno, J.(2001). "The influence of activism by institutional investors on R&D",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1), 144-157.

23. Dutton, J. E., Fahey, L., & Narayanan, V. K.(1983). "Toward understanding strategic issue diagnosi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4(4), 307-323.
24. Dean, T. J., Brown, R. L., & Bamford, C. E.(1998). "Differences in large and small firm responses to environmental context: Strategic implications from a comparative analysis of business formation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709-728.
25. Elenkov, D. S., Judge, W., & Wright, P.(2005). "Strategic leadership and executive innovation influence: an international multi cluster comparative stud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6(7), 665-682.
26. Hoskisson, R. E., Hitt, M. A., & Hill, C. W.(1993). "Managerial incentives and investment in R&D in large multiproduct firms", *Organization Science*, 4(2), 325-341.
27. Hoskisson, R. O., & Johnson, R. A.(1992). "Research notes and communications corporate restructuring and strategic change: The effect on diversification strategy and R & D intensit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3(8), 625-634.
28. Hill, C. W., & Snell, S. A.(1989). "Effects of ownership structure and control on corporate productivit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2(1), 25-46.
29. Hill, C. W., & Snell, S. A.(1988). "External control, corporate strategy, and firm performance in research intensive industri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9(6), 577-590.
30. Hult, G. T. M., & Ketchen, D. J.(2001). "Does market orientation matter?: A tes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onal advantage and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9), 899-906.
31. Hambrick, D. C., & Mason, P. A.(1984). "Upper echelons: The organization as a reflection of its top manager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9(2), 193-206.
32. Kor, Y. Y.(2003). "Experience-based top management team competence and sustained growth", *Organization Science*, 14(6), 707-719.
33. Lamberg, J. A., & Tikkanen, H.(2006). "Changing sources of competitive advantage: cognition and path dependence in the Finnish retail industry 1945-1995",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5(5), 811-846.
34. Levi, M.(1997). "A model, a method, and a map: Rational choice in comparative and historical analysis", *Comparative politics: Rationality, culture, and structure*, 28, 78.
35. Lumpkin, G. T., & Dess, G.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36. Miozzo, M., & Dewick, P.(2002). "Building competitive advantage: innov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in European construction", *Research policy*, 31(6), 989-1008.
37. Mahoney, J.(2000). "Path dependence in historical sociology", *Theory and society*, 29(4), 507-548.
38. Miller, D.(1987). *Material culture and mass consumption*.

39. Miller, D.(2011). Miller(1983). “revisited: A reflection on EO research and some suggestions for the fut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5(5), 873-894.
40.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41. Montgomery, C. A., & Hariharan, S.(1991). “Diversified expansion by large established firm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5(1), 71-89.
42. Morris, M. H., & Paul, G. W.(1987).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marketing in established firm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3), 247-259.
43. Mintzberg, H.(1973). “Strategy-making in three mode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16(2), 44-53.
44. Nooteboom, B.(1997). “Path dependence of knowledge: Implications for the theory of the firm”, *Evolutionary economics and path dependence*, 23, 57-78.
45. Pierson, P.(2000).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02), 251-267.
46. Prahalad, C. K., & Bettis, R. A.(1986). “The dominant logic: A new linkage between diversity and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7(6), 485-501.
47. Reed, S. K.(1993). “A schema-based theory of transfer”, In D. K. Detterman, & R. J. Sternberg(Eds.), *Transfer on trial: Intelligence, cognition, and instruction*(pp. 39-67). Norwood, New Jersey: Ablex.
48. Rhee, J., Park, T., & Lee, D. H.(2010). “Drivers of innovativeness and performance for innovative SMEs in South Korea: Mediation of learning orientation”, *Technovation*, 30(1), 65-75.
49. Sanders, W. G., & Carpenter, M. A.(2003). “Strategic satisficing? A behavioral-agency theory perspective on stock repurchase program announcement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6(2), 160-178.
50. Schneiberg, M.(2007). “What’s on the path? Path dependence, organizational diversity and the problem of institutional change in the US economy, 1900-1950”, *Socio-Economic Review*, 5(1), 47-80.
51.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52. Sewell, W. H.(1996). “Three temporalities: Toward an eventful sociology”, *The historic turn in the human sciences*, 245-80.
53. Shook, C. L., Ketchen, D. J., Hult, G. T. M., & Kacmar, K. M.(2004). “An assessment of the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strategic management research”,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5(4), 397-404.
54. Short, J. C., Payne, G. T., Brigham, K. H., Lumpkin, G. T., & Broberg, J. C.(2009). “Family firms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 publicly traded firm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P 500”, *Family Business Review*, 22(1), 9-24.
55. Sobel, M. E.(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56. Souitaris, V.(2002). "Firm-specific competencies determin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 survey in Greece", *R&D Management*, 32(1), 61-77.
57. Strandholm, K., Kumar, K., & Subramanian, R.(2004). "Examining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environmental change, strategic response, managerial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7(1), 58-68.
58. Szewczyk, S. H., Tsetsekos, G. P., & Zantout, Z.(1996). "The valuation of corporate R&D expenditures: Evidence from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free cash flow", *Financial Management*, 105-110.
59. Utterback, J.M., Abernathy, W.J.(1975). A Dynamic Model of Process and Product Innovation, Omega, The Int. JI of Mgmt Sci., Vol. 3(1), 639 - 656.
60. Wiseman, R. M., & Gomez-Mejia, L. R.(1998). "A behavioral agency model of managerial risk taking",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1), 133-153.
61. Walsh, J. P.(1995). "Managerial and organizational cognition: Notes from a trip down memory lane", *Organization science*, 6(3), 280-321.
62. Wiklund, J., & Shepherd, D.(2005).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small business performance: a configurational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1), 71-91.
63. Zahra, S. A., & George, G.(2002). "Absorptive capacity: A review, reconceptualization, and extens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2), 185-203.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Performance and R&D Investment: The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Han, Su-Kyeong* · Yoo, Jae-Wook** · Kim, Choo-Yeon***

Looking into the top-five innovative sectors in Korea's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innovation performance on R&D investment,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rategic decisions for corporate management. In the midst of an uncertain business environment, R&D investment has been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strategic decision making in corporate management related to innovation. Corporate management, however, tend to be reluctant to make sufficient R&D investment due to the risk of an investment failure. Therefore, having R&D investment by offsetting this risk has been deemed as a key task for corporate management. However, prior studies have failed to identify which factors affect companies' strategic decision making on R&D investment. This study is to remedy this weakness of prior study. Relying on path dependency theory at organization-level and dominant logic at individual-level,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which see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s a positive mediator between innovation performance and R&D investment. The results found in the analysis of 242 local companies i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represent that innovation performance has a direct and positive effect on R&D investment, while it indirectly affects R&D investment through the mediating role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They also revealed that innovation performance had a meaningful impact o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which is an inclination to seek innovation, led to R&D investment. The founding of this study imply that innovation performance in the past affects innovation strategies in the future, and such a relationship could be strengthened by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s the dominant logic of corporate management.

Key Words: Innovation performance, Path dependency, Dominant logic, Entrepreneurial orientation, R&D investment

* First Author, Master Student,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tnrd1211@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jwyo@konkuk.ac.kr

*** Coauthor. Ph.D Student,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chookim@konkuk.ac.kr